Information

KIPO NEWS

녹색기술 초고속 특허심사제도, 2년째 '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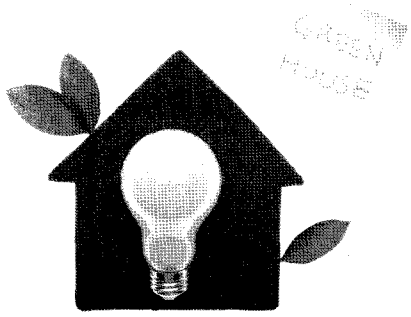
특허청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연구 · 개발된 녹색기술의 특허심사를 한 달 이내에 처리하는 초고속 특허심사제도가 지난 10월 1일에 시행 2주년을 맞이했다.

현재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일반 특허심사의 경우 평균 17개월 정도 소요되나, 초고속 특허심사를 이용하면 1개월 이내로 단축되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이다. 초고속 특허심사를 통해 가장 빨리 등록된 건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관한 중소기업의 출원으로 초고속 특허심사 신청 후 11일 만에 특허결정이 되었다.

초고속 특허심사를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빨리 획득하면 출원인은 이를 토대로 신속하게 사업화를 할 수 있다. 2009년 10월에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278건에 대해 초고속 특허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특허를 받은 이후 사업화하는 비율은 83%로 전체 특허의 사업화 비율인 43%보다 높은 수준이다.

출원인이 녹색기술 초고속 특허심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비롯한 8개 환경 · 에너지 관련법 등에서 인정하는 녹색기술이어야 하며, 둘째, 특허청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있어야 하고, 셋째, 전자출원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녹색기술 초고속 특허심사제도는 2011년 2월 국무총리실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선정한 '기업이 뽑은 규제개혁 베스트 10'에 꼽힐 정도로 기업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특허제도 통일 가속화

특허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원인이 더욱 편리하게 특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국 특허제도를 통일하기 위한 특허법 조화(Patent Law Harmonization)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국제연합(UN)의 지식재산 전문 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총회 기간 중 미국, 일본, 유럽 등 11개 주요 특허 · 상표청들과 연쇄회의를 갖고, 세계 특허제도 통일 및 출원인에게 더욱 편리한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총회 기간 중에는 각국 특허청들 사이에서 특허법 조화가 중요 이슈로 다루어졌으며, 이수원 청장 역시 일본, 덴마크, 영국 특허청장 등과 특허법 조화의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렇게 특허법 통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미국이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개정 특허법에서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고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운영중인 선출원주의**를 채택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선발명주의** : 발명을 한 순서에 따라 특허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제도

** **선출원주의** : 특허출원을 한 순서를 특허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 우리 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특허청이 채택

또한 이수원 청장은 알베르토 까사도 세르비뇨(Alberto Casado Cerviño) 스페인 특허청장과 지재권 행정 관련 양 청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으며, 페루 대표단과는 특허청이 페루 출원인에게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상의 국제조사기관**으로서 특

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PCT : 국제특허출원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약

** 국제조사기관 : 국제출원에 대해 특허 가능 여부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이제 특허수수료 ATM으로도 낼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은행방문이나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아도 전국 각지에 있는 ATM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 ATM(은행업무자동화기기): Automated Teller Machine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디자인 등의 연차등록료를 ATM으로 납부할 수 있고, 향후에는 ATM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가 출원료 등 다른 분야까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ATM으로 특허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와 함께 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해당 연차등록료를 이체하면 된다.

은행방문이 쉽지 않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특허고객들도 ATM을 통해서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특허고객들의 수수료 납부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고객상담센터 이용고객 500만 돌파

특허청은 지난 10월 28일로 특허고객상담센터가 서비스 개시 9년 7개월 여 만에 이용고객 500만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500만 돌파에 앞서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고객감동사례 공모, 특허청 직원 대상 1일 상담사 체험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고, 31일 특허고객상담센터 이용고객 500만 돌파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2002년 3월 20일 24명의 상담사로 운영에 들어간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는 현재 48명의 전문상담사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에는 하루 평균 1,000여 건의 상담을 하였으나 지금은 2,500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전화상담이 62만 건에 달하였다.

현재 특허고객상담센터에서는 일반상담 이외에도 특허 및 상표 관련 국제출원 전문상담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애써 등록받은 특허권 등의 권리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료미납 고객 등에게 해결방법을 미리 안내하는 '엔젤 콜(Angel call)'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허심판, 더 알기 쉽게

최근 국제 특허분쟁이 가열되면서, 지식재산권 분쟁의 공정 · 정확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특허심판원(원장 조용환)은 특허심판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고, 심판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심판편람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심판의 실무절차에 대한 지침서로서, 특허청 심판관 외에 심판의 당사자와 대리인에게도 심판의 절차를 알려주는 필수품이다. 이번 개정판에는 법령개정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도 공정 · 정확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심결문을 통일화하고, 구술심리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Information

KIPO NEWS

특허청, 내년 예산(안) 지식재산강국 도약에 역점을 두고 편성

특허청은 특허 · 상표 · 디자인 등 무형자산이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재산 시대를 선도하고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예산(안)을 올해(3,633억 원)보다 11.6% 늘어난 4,054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고품질 심사 · 심판서비스 제공 및 지식재산 창출 · 보호 · 활용 등 특허청 주요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예산은 2,219억 원으로 2011년도보다 8.1% 증가한 규모이다.

특허청, 중소기업 대상 정보화사업 예산 대폭 늘린다

특허청은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의 특허행정 정보화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내년도 정보화사업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2012년도 특허청 정보화사업 전체 예산은 올해의 442억 원 보다 1.1% 감소한 43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중소기업 대상 정보화사업 예산은 2011년 44억 원에서 27.3% 증가한 56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대상 정보화사업 예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선 중소기업 단독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정보화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발주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대규모 정보화사업은 대 ·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사업 수주에 유리하도록 평가배점을 조정하고,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도 현재 3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2012년도 중소기업 대상 정보화사업 예산의 주요내역은 PC · 프린터 전산장비 구매사업에 14억 원, 특허데이터 품질 강화 사업에 12억 원, 국제특허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에 8억 원, 특허넷 일반행정시스템 운영위탁 사업에 4억 원 등이다.

특허청, 지식재산 교육에 앞장설 대학 육성

최근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보듯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특허청은 대학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 ·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은 대학에서 지식재산 교육을 전담할 교수를 확보하여 이공계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지식재산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식재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 기업과 사회에 공급하고, 아울러 아직 초기단계인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우수한 교육모델을 개발하여 다른 대학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으로 금년에 3개 대학을 선정하여 각 연간 1억 5천만 원 내외를 5년간 지원(총 7억 5천만 원이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내년부터는 5개 대학씩 3년간 총 15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허청 도서관, 대국민 열린공간으로 새단장

특허청은 청내 도서관의 이용환경을 새롭게 개선하고, 일반 국민들이 소장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946년 설립된 특허청 도서관은 심사관이 국제특허를 심사할 때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필수문헌과 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소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권 전문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에는 국내외 정기간행물 8만여 권과 단행본 3만여 권이 소장되어 있으며, 온라인 특허정보 검색서비스(kipris)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도서관을 개가제(開架制)로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가 서고에서 필요한 자료를 직접 찾아볼 수 있으며, 사서(司書)가 이용자의 검색 및 열람서비스를 도와주고 있다.

이용자는 도서관 홈페이지(library.kipo.go.kr)를 통해 자료를 검색한 후 우편이나 팩스로 복사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특허청의 최신 간행물 목록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한국이 만든 지재권 e-러닝 콘텐츠 중남미 간다

특허청은 지난 10월 12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스페인어판 IP 파노라마(panorama) 출시행사를 가졌다.

IP 파노라마는 한국 특허청과 WIPO, 한국발명진흥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재권(IP, Intellectual Property) e-러닝 콘텐츠다.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스토리텔링(storytelling)* 형식으로 이루어져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지재권 활용전략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

* **스토리텔링** : 음성(voice)과 행위(gesture)를 통해 청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IP 파노라마는 일정한 줄거리가 있는 스토리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러운 학습 참여 및 흥미를 유도한다.

총 13개 주제로 구성된 IP 파노라마는 중소기업에서의 지식재산 중요성 , 상표와 디자인, 발명과 특허와 같은 익숙한 주제부터, 영업비밀, 기술 라이센싱,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재권 프랜차이징 등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주제까지 다루고 있다.

2007년 영문판 IP 파노라마를 개발하여 전 세계의 호평을 받은 특허청은 2009년 UN 공용어인 아랍어판을 개발했고 지난해에는 세계 4억 5천만 여 인구의 스페인어권 사용자를 위해 스페인어판을 개발해 이번에 출시했다.

이에 따라 IP 파노라마는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지재권 e-러닝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제공 특허청